

□ 왕이, 인도의 필요에 따른 지원 의지 재천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코로나19 협력 대응을 위한 중국·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네팔·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 6개국 외무장관 화상 회의에서 “이번 회의에 인도도 초청했다”면서 “인도가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인도 국내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깊은 동정을 표하며, 인도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또 “중국은 인도 측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인도 국민을 지원하고 도울 용의가 있다”고 재천명했다. 이어 “중국 관련 기업은 정부의 지원 하에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으며 1차로 보낸 산소호흡기가 이미 인도에 도착했다”면서 “오늘 회의가 인도의 코로나19 승리에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다.(人民网, 2021.4.28.)

□ 中 올해 1분기, 1인당 가처분 소득 약 167만원

올해 1분기 중국인의 소득 및 지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1인당 가처분소득 9천730위안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9천730위안(약 166만9천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7% 상승한 수치다. 물가변동을 감안한 실제 성장률도 13.7%로 같았다. 2019년 1분기보다는 14.6% 증가해 2년 평균 7.0%의 성장률을 보였다. 물가변동을 감안하면 2년 평균 실제 성장률은 4.5%로 집계됐다. 그중 도시 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만3천120위안(22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가변동을 감안한 실질 성장률은 12.3%였다. 농촌 주민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16.3% 늘어난 5천398위안(92만6천원)으로 실질 성장률은 16.3%에 달했다.

1분기 중국 전국 주민 가처분 소득의 중위수는 8천14위안(137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그중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 중위수는 1만1천90위안(190만2천원),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 중위수는 4천340위안(74만4천원)으로 각각 10.5% 19.7% 늘었다.

○ 지출: 1인당 소비지출 5천978위안

올 1분기 중국의 1인당 소비지출은 5천978위안(약 102만5천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6% 상승한 수치다. 물가변동을 감안한 실제 성장률도 17.6%로 같았다. 2019년 1분기보다는 8.0% 증가해 2년 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였다. 물가변동을 감안하면 2년 평균 실제 성장률은 1.4%였다. 그중 도시 주민의 평균 소비지출은 7천495위안(128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물가변동을 감안한 실질 성장률은 15.8%로 집계됐다. 농촌 주민의 평균 소비지출은 21.1% 늘어난 4천39위안(69만3천원)으로 실질 성장률은 21.1%에 달했다. 올 1분기 소비지출액 중 기호식품(주류 및 담배)에 대한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천986위안(34만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의복 지출액은 437위안(7만5천원), 주거 비용 지출액은 1천345위안(23만1천원), 생활용품 및 서비스 지출액은 339위안(5만8천원), 교통통신 지출액은 702위안(12만원), 교육문화오락 지출액은 545위안(9만3천원), 의료 보건 지출은 484위안(8만3천원), 기타 용품 및 서비스 지출이 139위안(2만4천원)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교통통신 지출과 교육문화오락 등 서비스 소비지출은 1분기 반등세를 보였지만 2년 평균 증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중 1인당 평균 교통통신 지출은 1분기에 16% 증가했지만 2019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년 평균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新华社, 2021.04.29.)